

말씀, 기도가 되다

시편 119 편과 함께하는 40 일간의 여름 들과 여정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1.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 네 절은 분량을 채우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소리 내어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묵상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이 말씀이 지금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묻게 합니다. 묵상은 지식을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3.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4. 부르짖는 기도는 감정을 쏟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40 일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40 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7월 예배 위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박승화(5) 김근배(12) 한광기(19) 최명희(26)	

주일 예배 2026년 7월 19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같이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57 번(시편 130 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찬송가 363(신) 337(구)

기도 / 한광기 장로

성경 봉독 / 누가복음 7 장 1-10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왜 만나지 않고도 충분했을까 / 박화신 목사

찬송 / 만세 반석 열리니 / 찬송가 494(신) 188(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우리는 늘 눈앞의 증거를 구하지만, 백부장은 말씀의 우주적 권세를 믿었습니다. 군대의 명령 체계처럼, 만물의 주재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거리와 상관없이 질병과 어둠을 즉각 굴복시킵니다.
2. 백부장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보다 주님의 명예를 먼저 배려했습니다. 참된 경외함은 주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거룩한 주권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꺾는 영적 지혜입니다.
3. 이 기적의 배후에는 신분과 민족의 편견을 깨고 오직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함께 그릇을 준비한 가버나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연합된 믿음이 준비될 때, 말씀은 만남을 넘어 삶의 실제적인 역사로 일어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7 월 20 일

Day 11 (월)

세상의 조롱을 부끄럽게 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41-44)

<개역개정>

41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42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43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44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새번역>

41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42 그 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응수하겠습니다.43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44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묵상

살다 보면 주변에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라며 은근히 조롱하거나, 상황이 풀리지 않아 스스로 위축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변명하려 하면 할수록 말문이 막히고 비참해지기 쉽죠. 시인은 사람과 말싸움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이 내 삶에 증거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백 마디 말보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기도의 초점

사람들의 비방이나 부정적인 시선에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제적인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도록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나를 비웃고 낙심하게 만드는 주변의 상황과 시선 앞에 내가 주눅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내 삶의 자리에 구원의 증거로 당당히 임하게 하사, 내가 믿고 따르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 년 표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코람 데오

Coram Deo

딤후 4:1-8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1. 바울은 디모테를 향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남깁니다. 그러나 명령에 앞서 먼저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증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곧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는 믿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 데오(Coram Deo)입니다.

2. 바울은 디모테에게 매우 단호한 어조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말하지 않고, 어떤 자세와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코람 데오의 삶입니다.

3. 코람 데오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수많은 사역의 열매와 업적을 남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단 한 가지를 자랑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고, 이것이 코람 데오의 결론입니다.

4.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향해 소망을 선포합니다. 코람 데오의 삶은 현재의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다시 오실 주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들을지이다.'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7 월 22 일
Day 13 (수)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

오늘의 말씀 (시편 119:49-52)

<개역개정>

49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새번역>

49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50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51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2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묵상

인생에 거센 겨울바람이 불고 깊은 밤이 찾아오면,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난이 몰려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을 다시 숨
쉬게 만드는 인공호흡기는 다름 아닌 '기억'입니다. 나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던 주의
말씀, 과거 내 인생의 위기마다 신실하게 건져주셨던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해 내는
순간, 고난은 위로의 노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초점

내 감정이나 차가운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여 고난의 상황을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비록 캄캄한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나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이 깊은 밤이 지나기 전 나를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려내어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7 월 23 일
Day 14 (목)

진짜 '나의 분깃'을 붙잡는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53-56)

<개역개정>

53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54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55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새번역>

53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54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55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56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묵상

세상 사람들은 은행 잔고, 부동산을 진짜 '내 소유(재산)'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나그네 여행이 끝날 때 그것들은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죠. 시인은 "내
소유는 오직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밤낮으로 내 입술에
멤돌았던 말씀의 노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직하게 말씀에 순종했던 영적 흔적만이
영원히 썩지 않는 내 인생의 진짜 자산입니다.

기도의 초점

썩어질 세상의 소유를 부러워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말씀의 순종을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분깃(재산)으로 삼기 위한 정결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행과 소유의 넉넉함에 내 마음을 빼앗겨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지나는 동안 오직 주의 말씀을 내 영혼의 가장 값진
보물로 삼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부요한 영적 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7 월 24 일
Day 15 (금)

영적 민첩함을 고백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57-60)

<개역개정>

57 여호와와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58 내가 전심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59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60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새번역>

57 주님,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58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59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
갑니다.60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묵상

금요일쯤 되면 한 주간 바쁘게 사느라 영적 궤도에서 살짝 이탈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영적 민첩함'입니다. 내 행위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방향임을 깨달았을 때,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신속히, 지체 없이" 발걸음을 꺾어 말씀으로 돌아오는 욕심입니다.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돌아켜야 합니다.

기도의 초점

한 주간의 흐트러진 생각과 삶의 자취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머뭇거림 없이 신속하게 말씀의 주춧돌 위로 내 삶을 돌아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내 고집과 연약함으로 은연중에 말씀의 궤도를 벗어났던 모든 걸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차일피일 순종을 미루며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즉시 신속하게 주의 법을 향해 내 발길을 돌이키게 하소서. 주말 동안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 기도가 되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40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 편 105 절 -

2026 년 7 월 21 일
Day 12 (화)

넓고 자유로운 대로를 걷는 기도

오늘의 말씀 (시편 119:45-48)

<개역개정>

45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46 또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들을
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47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48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새번역>

45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46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47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48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묵상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법)을 나를 가두고 구속하는 '답답한 울타리'처럼 생각합니다. 내 맘대로 살아야 자유롭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짜 자유는 기차의 바퀴가 선로 위를 달릴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궤도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눈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높은 세상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배짱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도의 초점

죄와 두려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말씀이 주는 거침없는 영적 담대함과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주님! 나를 묶어매는 세상의 평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말씀의 완벽한 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영적 대범함을 부어주옵소서!